



# 제2검정소 경매 100회 기념 행사 성대히 개최

(-각종 축산기자재와 전자제품 경품으로 제공)

- 홍보부 -

- ▲검정소 경매 행사장 내부 모습
- ▶제2검정소 100회 기념 축사를 하는 본회 이명복 회장 직무대행



지난 12월 5일 제2검정소에서 개최된 경매 100회 기념 행사가 성대히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이명복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 정구용 하동군수, 조옥봉 양돈산학협동연구회장, 임정근 하동 축협 조합장, 최진성 축산기술연구소 사천지소장 등 외빈 인사와 본회 최상백 전 회장, 김재철 전 회장 직무대행, 김건태 부회장, 김철수 이사, 김인식 이사, 박노영 이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복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경매 100회 행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중돈의 능력이 크게 개량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위생적인 중돈 보급과 검정료 인하 등을 통해 값싼 중돈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검정소는 이날 행사에서 제2검정소 설립과 운영에 공이 큰 최상백 전 제2검정소 운영위원장, 농림부 축산국 정진국 계장,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정정수 소장, 하동축협 진교지소에 감사

패를 전달했다. 지난 90년부터 올해까지 최다 출품중돈장인 광암축산과 최다 우수돈 배출농장인 동림중돈, 최근 3년간 검정돈 최다 구입 개인인 이문하씨(남제주 지부장), 최근 3년간 최다 구입 지부인 합천지부에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지난 10월 정년 퇴임한 김형균 전 소장에 게 본회 이명복 회장 직무대행은 퇴임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특히 김혁규 경남도지사는 김형균 전 소장에게 위생적인 중돈 보급과 중돈개량에 대한 공을 기려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출품 중돈장들이 경매 참가자들에게 TV 등 4백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장백축산을 비롯 15개 축산기자

재 업체에서도 임신 진단기 등 각종 축산 기자재 9백여만원어치가 경매 참가자들에게 추첨해 의회사은품으로 제공되었다.

제2검정소는 지난 90년 5월 개소한 이후 100차례의 경매를 통하여 약 9,000여두에 달하는 우수한 종돈을 양돈농가들에 분양하였다.

검정소 개소 당시에는 종돈의 일당증체량이 868g이었으나, 현재는 913g으로 6%나 개량되었고, 등지방두께는 1.6cm에서 1.4cm로 10%나 개량되었다. 또한 90kg 도달일령도 145일에서 142일로 3일 단축되었다. **양돈**



▲본회 이명복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정년퇴임한 김형균 전소장에게 퇴임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날 경남도 김혁규 도지사는 김 전소장에게 위생적인 종돈분양의 공을 기려 감사패를 수여했다.



▲검정돈 구입자들에 경품으로 제공된 축산기자재와 전자제품들



◀이날 경매행사에서는 휴식시간에 도우미들이 등장, 여흥을 돋구었다.



▲경품 추첨에서 TV에 당첨되어 즐거워하는 검정돈구입자 (합천치부 송을봉 회원, 중간 손 들고 웃는 사람)



▲경매 행사장 주변에는 축산 기자재 업체들이 부스를 마련하고 자사제품 홍보에 열을 올렸다.